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XI
YOU
JI

여승원
저
한미애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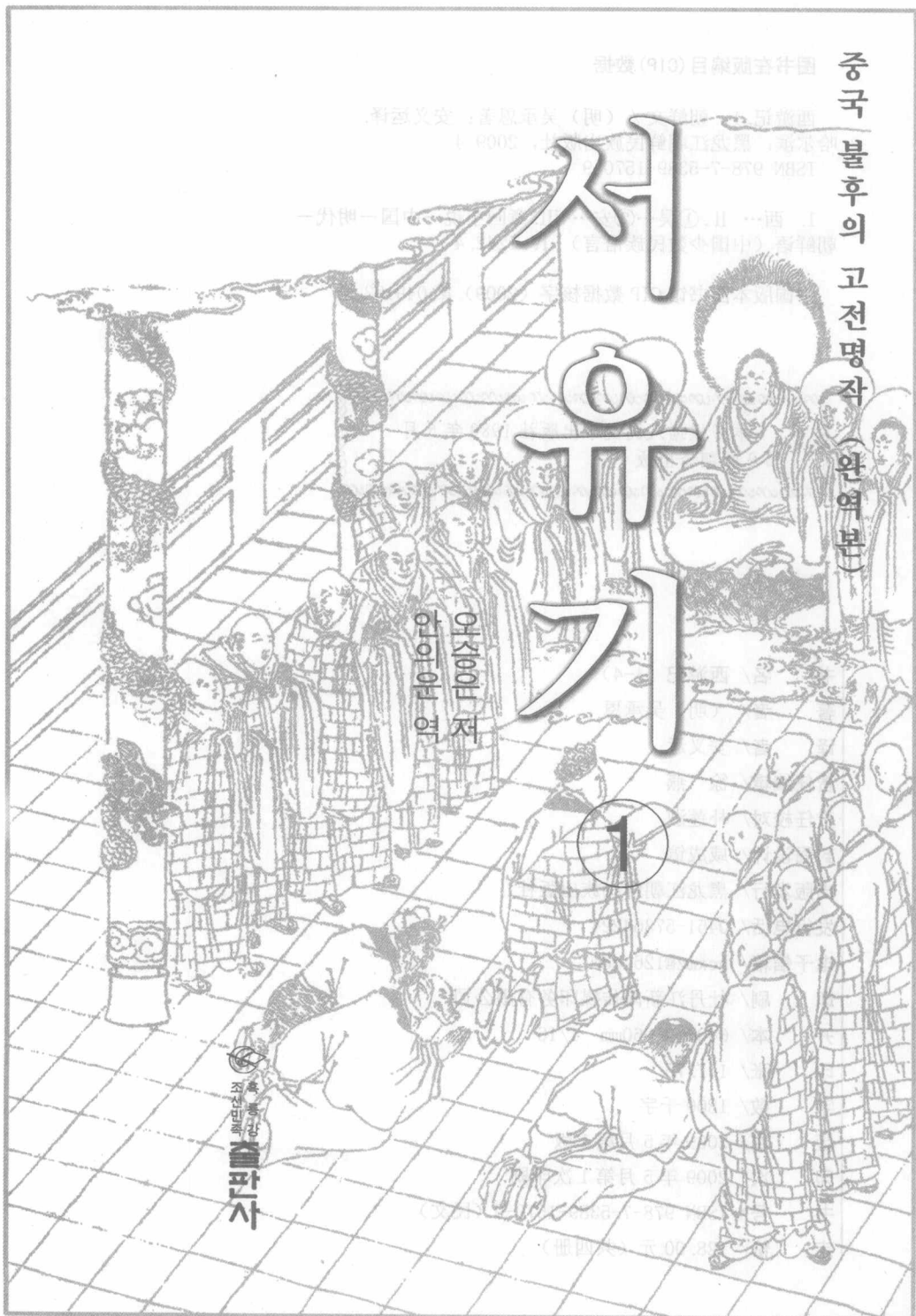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오스카르 지
안익호 역

1

북경
조판출판사
북경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西游记. 1: 朝鲜文 / (明) 吴承恩著; 安义运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70-9

I. 西… II. ①吴…②安… III. 章回小说—中国—明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3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80 年 5 月
第 2 版翻译出版

书 名/ 西游记 (1-4)
著 者/ (明) 吴承恩
译 者/ 安义运
责任编辑/ 徐 燕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17.75
字 数/ 1800 千字
版 次/ 2009 年 5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5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70-9 (民文)
定 价/ 128.00 元 (共四册)

머리말

1

《서유기》는 대략 명조중엽인 16세기 70년대에 책으로 완성되었다. 《서유기》는 앞서 나온 《삼국연의》, 《수호전》 그리고 그후에 나온 《유림외사》, 《홍루몽》과 함께 우리 나라 명청시기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수한 장편소설이다. 중국고전소설예술의 휘황한 성과의 징표이기도 한 이러한 소설들은 중국인민, 나아가서는 세계인민이 즐겨 읽는 고전문학작품으로 되었다.

고전소설 《서유기》도 자체의 특점을 갖고있는바 이 소설을 읽을 때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리해해야 한다.

첫째, 《서유기》는 일반 고대소설들과는 달리 신화와 동화의 성질과 특점을 다분히 지니고있다. 모택동동지는 “신화중의 허다한 변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72변이라든가 《료재지이》에서 나오는 허다한 귀신과 여우들이 사람으로 변한 이야기”에 대해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신화에서 말하는 모순의 호상변화는 결코 구체적모순이 나타난 구체적변화가 아니라 무수하고 복잡한 현실적모순의 호상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으킨 유치하고 사상적이고 주관환상적인 변화인것이다.”¹⁾

“그것은 결코 현실에 대한 과학적반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나 동화에서의 모순구성의 제 측면은 결코 구체적동일성이 아니라 환상적동일성일따름이다.”²⁾

모택동동지는 여기에서 신화나 동화류의 문학예술창작의 구체적 성질과 특점을 지적하였는바 이는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리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의의를 갖고있다.

1) 모택동. “모순론”

2) 동상서

다 알고있다싶이 “관념형태로서의 문예작품은 모두 일정한 사회 생활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되어 생긴것이다.”¹⁾ 신화 및 신화소설 《서유기》와 같은 작품들도 하나의 관념형태로서 역시 일정한 사회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수호전》, 《홍루몽》중에서 묘사된 인물과 사건 및 모순투쟁은 극소부분이 종교적미신과 문학적환상을 반영한것외에 대부분은 현실 생활속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것들이다. (물론 문학작품은 예술적가공을 거친것이다.) 《서유기》에서 묘사한 손오공, 저팔계, 옥황상제, 신선, 요괴 그리고 손오공이 천궁을 소란시킨다거나 지부에 돌입하고 룡궁을 란장판으로 만든다거나 이랑신과 지혜를 겨룬다거나 백골정을 세번 쳤다든가 하는 이야기줄거리들은 현실생활에 있을수도 없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것들이다. 그러나 이야기속에 있는 많은 문학적인 환상적 인물과 사건들은 역시 현실생활과 동떨어질수가 없는것들로서 작자가 사회현실속에서 장악한 자료와 사회생활에서 얻은 감수, 이해를 그 창작적토대로 삼고있는것이다.

《서유기》는 랑만주의로 충만된 환상적인 필치로 손오공이라는 이 신화적영웅인물의 신통력과 변화를 그려내고있다. 작품에서 손오공은 승천입지도 하고 호풍환우도 하며 변하고싶은대로 변하는데 심지어 토지묘로도 변할수 있다. 그리고 근두운을 타면 단번에 십만 팔천리를 날수 있고 금고봉을 수놓이바늘만큼 작게 변화시켜 귀안에 넣을수도 있고 사발아구리만큼 굵고 몇장 길이로 길게 변하게 할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현실생활에서 가능한 일일까? 물론 어렵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렇게 활발하고 지혜롭고 락관적이며 투쟁정신과 무궁한 재주를 가진 인물을 좋아할뿐만아니라 그 신비스럽고 대단한 위력을 가진 금고봉마저 좋아하고있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손오공이 천궁을 소란시키고 요마들과 싸우는 등 환상적인 이야기속에 우리가 능히 이해할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며 또 이런 이야기들이 모종의 사회비판적의의를 갖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랑만적인 묘사 방법은 작품이 나타내는 예술세계에서는 합리적인것이다. 그러므로 《서유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소설은 신화소설의 성질과 특징을 가진 소설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읽어야 이 작품의 사회적 내용과 의의를 정확

1) 모택동.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강화”

히 인식할수 있다. 과거에 오일자, 오원자 등 사람들은 《서유기》를 “담선(談禪)”, “석도(釋道)”의 책이라고 말하였고 그후에 호적은 이 책이 “완세주의(玩世主義)”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들은 모두 이 작품의 사회적 내용과 의의를 말살하고 외곡한 오유적인 평가들이다.

둘째, 《서유기》는 작가 개인이 창작하고 완성시킨 그런 작품들과는 달리 고대민중들의 창작과 작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되어 완성된 작품이다. 중국고전소설들중에서 《서유기》는 《유림외사》, 《홍루몽》 등과 같은 순 작가 개인에 의해 창작된 작품과는 다르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창작된것이 아니라 《수호전》, 《삼국연의》 등 작품들처럼 긴 시간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창작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한 사람에 의해 총화성적으로 재창작되고 책으로 마무리된것이다.

당송의 취경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지 존재했던 사실이다. 당태종 정관년간(기원 627년부터 기원 649년까지)에 중 진현장은 불경의 교의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하여 천축(인도)에 경을 구하러 가기로 작심했다. 그는 전후하여 17년이란 긴 시간을 거쳐 수만리 길을 걸었으며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끝내 600여부의 불경을 얻어가지고 장안에 돌아왔다. 귀국후 현장은 성지에 의하여 불경 번역작업을 맡아하는 한편 서역에서 보고들은 일들을 구술로 전했다. 그의 제자 변기(辯机)가 그의 구술에 근거하여 《대당서역기(大唐西域记)》를 써서 서역 여러 나라들의 불교유적과 토산물, 풍속 등 정황에 대해 소개했다. 후에 또 그의 제자들인 혜립(慧立)과 언종(彦宗)이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을 써 현장이 서역에 다녀온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 두 책은 모두 실제로 있는 사람과 사실을 쓴것이지만 전자는 불교의 발원지에 대한 전문을, 후자는 불교도의 전기를 쓴것인만큼 신비한 종교적색채가 많았다. 특히 《서역기》에서는 더 많은 종교적품문과 불경속의 이야기를 기술하고있다. 또한 교통이 극도로 불편한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현장이 홀몸으로 서역에 가서 경을 얻어온것 자체가 모종의 전기성적인 색채를 띠고있었다. 이리하여 당송의 취경이야기는 민간에 류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 점점 별의별 신비한 내용들이 보태지게 되었다.

송조때에 이르러 취경이야기는 이미 민간에 광범위하게 류전되었는바 이야기군들의 주요한 이야기거리로도 되었다. 현존하고있는 《대

당삼장취경시화(大唐三藏取经诗话)》가 바로 남송시기의 이야기꾼들이 사용하였던 화본이다. 이 책은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师传)》처럼 실지로 있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행자(猴行者)가 백의수사(白衣秀士)로 변하여 당승을 보호하면서 도중에 요괴를 때려잡는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 책은 이야기줄거리가 조잡하고 예술적상상력과 문장조직 등이 오승은의 《서유기》에 비해 많이 못하지만 처음으로 취경이야기를 문예창작에 도입하고 주인공을 현장이 아닌 후행자로 한 것이 주목된다. 이 책에서 나오는 후행자와 심사신(深沙神)은 후에 나온 《서유기》의 손오공과 사화상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저팔계라는 인물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었다.

원조때에 이르러 취경이야기는 더 크게 발전하였다. 이미 발견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는 원조부터 명조초기에 이미 《대당삼장취경시화》보다 더 성숙된 《서유기》 화본소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석하게도 지금은 그때의 《서유기》 화본소설을 볼 수 없고 다만 명조 영락년간(기원 1403년부터 기원 1424년까지)에 편찬된 《영락대전(永乐大典)》에서 “위징이 꿈에서 경하의 룡을 베다”라는 제목으로 된, 《서유기》에서 발췌했다는 1,200여자 되는 문장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단락의 문장에서 쓴 이야기내용은 현존 세덕당본(世德堂本) 《서유기》 제9회 “원수성(袁守誠)은 용케도 무사곡(无私曲)을 알아맞히고 룡왕은 어리석게 하늘의 법을 범하다”와 제10회 앞부분의 내용과 맞먹는다. 이밖에 조선고대의 한어교과서인 《박통사언해(朴通事谚解)》에서도 “당삼장서유기”라고 제목을 단 평화(平话)를 여러곳에서 인용하였다. 비록 《박통사언해》에서 인용한 문장이 그 화본의 원문이 아니고 옮긴이의 간략된 문장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그 화본에는 이미 많은 취경이야기들이 실려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경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대우에서 공연되었다. 일찍 금원본(金院本)에는 《당삼장》이 있었고 원잡극(元杂剧)에는 오창령의 《당삼장서천취경(唐三藏西天取经)》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실전되었다. 현재 존재하고있는 것으로는 원조말기, 명조초기때의 사람 양경현(杨景贤)이 쓴 《서유기》 잡극이 있다. 이 책에서는 당승이 태어난 이야기는 다루었으나 위징이 꿈에 경하의 룡을 베는 이야기와 당태종이 명계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는 없다. 이 책의 주인공 역시 손오공이긴 하지만

그후의 《서유기》에서 묘사한 손오공의 인물형상과는 비할수가 없으며 오승은의 붓끝에서 묘사된 손오공의 형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조때 현장이 경을 가져오고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대당서역기》 등 책이 나타난후로부터 송조, 원조, 명조초기까지 이 몇백년사이에 취경이야기는 구전전설, 화본소설 및 잡극 등 여러가지 경로와 예술형식을 통하여 부단히 발전하여왔다. 또 취경이야기는 오랜시간을 거쳐 류전되는 과정에 많이 변화되었다. 인민들은 원래의 이야기줄거리를 부단히 고치고 보태고 하였으며 동시에 봉건통치계급과 봉건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관찰과 인식을 이야기속에 주입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사회, 악세력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반영하였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리상과 소망도 반영하였다. 오승은의 《서유기》는 취경이야기를 다룬 민간문학의 체재를 직접 계승하였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풍부한 사상적자양분을 섭취하여 이 신화소설로 하여금 생동하고 재미있는 묘사의 갈피갈피에 왕왕 귀중한 사상이 번뜩이게 하였다. 례를 들면 소설 제45회에서 손오공이 한무리의 퇴전풍우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것이다.

“이 금고봉만 지켜보다가 내가 이 금고봉을 우로 쳐들면 곧 바람을 일으키란 말이요.”

풍로파와 손이랑은 지체없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쳐들면 구름을 퍼구.”

추운동자와 포우랑군도 인차 대답하였다.

“네, 네, 구름을 퍼드리지요.”

“세번째로 쳐들면 우리와 번개를 치구.”

퇴공과 전모는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

“네, 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네번째로 쳐들면 비를 내리구.”

“네.”

룡왕들은 일제히 대답하였다.

이러한 묘사들은 신들앞에서의 손오공의 위풍과 강대한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이런 랑만주의 예술적사상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고대인민들의 강렬한 념원을 아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인간

의 노력이 하늘을 이길수 있다는 낙관적인 정신을 반영하고있다. 또 이것은 고대인민들이 “상상과 상상력을 빌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의 힘을 지배하려 했음을”¹⁾ 표현하기도 한다.

《서유기》는 우리 나라 고대인민군중들의 집단창작과 작가의 개인창작이 결합하여 탄생된것으로서 《서유기》에 관한 민간문학이 없었더라면 오승은의 《서유기》도 없다고 말할수 있다. 고대인민군중들의 집단창작으로 된 이 기초우에서 간단하고 조잡한 내용을 재창작을 거쳐 예술적 특점이 더욱 성숙되고 내용이 더욱 풍부해진 한부의 고전신화소설이 탄생되게 된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또한 작가 오승은의 공헌이다.

셋째, 비록 오승은은 작품속에서 당시의 암흑한 봉건사회현실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였지만 그저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랐을뿐 봉건통치제도를 뒤엎으려는것은 아니였다.

오승은, 자는 여충(汝忠)이고 호는 사양산인(射陽山人)이며 회안부 산양현(지금의 강소 회안)사람이다. 그는 소관료에서 소상인으로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나 명조중엽인 약 기원 1500년부터 기원 1582년 사이에 생활하였다. 증조부와 조부는 련속 2세대가 작은 문관직에 있었으나 이름을 날리지 못하였고 채색실과 비단등속 장사를 하는 아버지는 경영에는 소질이 없는 소상인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글 읽기를 즐겨했으나 관리들에게 자주 협잡을 당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현실에 늘 불만을 품고있었다.

오승은에 대하여 이전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적재질이 뛰어나 회안일대에 이름을 날리였다.”

“민첩하고 지혜로우며 많은 책을 읽어 지식이 해박하다. 붓을 들면 시가 나오고… 또 해학적인 극을 창작하는데도 재간이 있었는데 그가 쓴 여러편의 잡기들은 한시기 이름을 날렸다.”

이러한 평가들에 의하여 우리는 오승은 일생의 한 측면을 리해할 수 있다. 오승은의 과거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여 40여세가 되어서야 겨우 “세공생(歲貢生)”을 얻었다. 순탄치 못한 과거길과 어려운 처지 등 원인으로 하여 그는 늘 가난한 생활을 하였으며 세도가들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그는 정계와 과거제도의 부패상에 대하여 더 깊이 료해하게 되였으며 변덕스러운 사회세대를 인식하고 비판

1) 맑스. “정치경제학비판서론”

하게 되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아침할줄 몰라 60여세가 되어서 부득이 작은 관직을 맡았는데 그것도 허리를 굽혀 권세에 아부하려 하지 않는 성격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만두었다. 그는 한평생 많은 작품을 썼으나 생활이 쪼ذ게 가난했고 또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등 원인으로 대부분이 실종되고 현재 실존하고있는것은 《서유기》외에 후세사람들이 다시 정리한 《사양선생존고(射陽先生存稿)》가 있을뿐이다.

순탄하지 못한 과거길로 하여 오승은은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오승은은 “왕도(王道)”와 “덕치(德治)”를 결합하여 봉건통치질서를 유지할것을 주장하였는바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정치사상과 주장이었다. 그의 이런 주장들은 《사양선생존고》에서 엿볼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책에 “명당부(明堂賦)”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당대황제의 공덕을 구가한 전형적인 작품이다. 여기에서 그는 명세종 가정황제를 숭고하고 위대한 천자라고 칭찬하였으며 그의 통치를 “인심에 맞고 천심을 따름” 통치로서 “백성들은 해빛아래에서 생활하고 상하가 합심되어 화기에애하다”고 칭찬하였다. 물론 이것은 “왕도”와 “덕치”를 결합하여 통치할것을 바라는 작가의 환상이지 결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것은 아니다. 기실 가정황제는 도교를 숭상하여 오래동안 정사는 돌보지 않고 궁전에 들어박혀 단약이나 만들어 먹으면서 불로장생을 바라는 아주 어리석은 황제이다. 일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그만둘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으며 도리어 진언을 한 사람들을 박해하였으며 지어 곤장을 쳐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는 정사를 엄숭(嚴嵩) 일당에게 맡겼다. 엄숭 일당은 탐욕스럽고 횡포하며 남을 해치는 무리들이기에 그때 통치는 말할수없이 부패하였다. 때문에 오승은은 이런 현실생활을 실제적으로 관찰하고 명조의 실상을 “군대가 날로 무기력해지고 가렴잡세가 날로 늘어나며 허위적인것이 흥행하고 사기를 치는 기풍만 늘어간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허리를 굽혀야 바라오를수 있고”, “겉으로는 웃으나 속에는 칼을 품고 서로 다른 당파들을 배척하며”, “세력을 위해서 파리나 쥐처럼 행동하고 리익을 위해서는 물여우처럼 행동하는” 추대들을 폭로하면서 “지금의 상황으로서 많은 말들을 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탄하였다.

오승은은 비록 당시의 암흑한 사회현상을 폭로하고 비판하기는 하였지만 의연히 “간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

라는 정치적환상을 버리지 못하였다. 장시 《이랑수산도가(二郎搜山圖歌)》에서 그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견해와 정치적포부를 충분히 밝히었다. 이 시에서 오승은은 화가의 높은 예술적기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빌어 명조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리상을 표현하였다. 시에서 그는 “의관”을 관료사대부에 비유하고 “원학(猿鶴)”과 “사충(沙虫)”을 각각 고상한 사람과 비렬한 사람에 비유하였으며 “오귀(五鬼)”와 “사흉(四凶)”을 각각 송조시기와 요순시기의 간악한 인물에 비유하였다. 오승은은 많은 시작품을 통하여 자신은 이러한 종류의 간악한 무리들을 제일 증오한다는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작품 《희대선생간원주의발(熙台先生諫垣奏議跋)》에서 반희대(潘熙台)가 관리를 할 때 모륜(毛倫), 녕고(寧杲), 강빈(江彬), 전녕(錢寧) 등 네 사람과 과감히 싸운것에 대해 특별히 칭찬하면서 이 네 사람이 바로 명조의 “오귀”와 “사흉”이라고 지적했다.

《이랑수산도가(二郎搜山圖歌)》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가의 기본적인 정치관념이 반영되었다. 즉 백성들이 재난에서 허덕이는 원인은 사회에 추악한 현상이 존재하기때문이며 통치자가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이리 같은 간신배들이 옥실거리기때문이라는것이다. 때문에 그는 “왕도”로서 봉건통치의 만년대업을 유지할것을 바랐다. 그러나 다만 한탄만 하였을뿐 실제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였다.

오승은은 현실생활중에서 자신의 정치적리상을 실현할수 없음을 심심히 느꼈으며 또 당시의 “오귀”, “사흉”따위 무리들에 대해 증오는 하나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다. 하여 그는 민간에서 류전된 신화이야기를 기초로 《서유기》라는 신화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리상을 손오공이라는 인물에 기탁하였으며 그의 손에 들려있는 대단한 위력을 갖고있는 금고봉으로 당시 요괴와 같은 존재의 부패한 간신배들을 소탕하였다. 오승은의 이러한 사상은 소설의 총체적인 사상내용이 제고된데서 보아낼수 있을뿐아니라 소설의 세부묘사와 인물의 언어묘사에서도 보아낼수 있다. 예를 들면 소설의 제45회에서 손오공이 신들에게 구름을 펴고 우뢰를 울고 비를 내리게 할 때 퇴공 등천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등천군! 거기서 잘 살펴 퇴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기는 벼슬아치들과 부모들께 불효막심한 후례자식들을 몇놈이라도 더 쳐죽여주오!”

소설에서 손오공이 제일 증오하는것은 “죄물을 받아먹고 법을 깨뜨리는 벼슬아치들”이다. 이것은 오승은의 많은 시에서 표현된 탐관오리들을 적대시하는 사상과 완전히 일치되는것이다. 이 실례는 오승은이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을 빌어 자신의 정치적리상을 표현했음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오승은은 어렸을적부터 야사나 민간이야기 같은것들을 즐겼으며 고대신화전설이나 민간전설에 익숙하였다. 그는 《우정지(禹鼎志)》라는 지괴소설을 쓴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비록 이 책은 지괴소설에 속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귀신에 대해 쓴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이 시기 인간사회의 변이에 대한 지괴소설이나 쓰면서 우화적의미를 더한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신화소설들은 비록 신선이나 귀신에 대해 썼지만 역시 “인간사회”를 반영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런 창작은 환상적인 형식과 현실적인 내용으로서 사실은 작가의 사회현실에 대한 평론과 비판이다. 물론 작가의 이런 비판은 사회가 개량되기를 바랄뿐이었지 근본적으로 봉건사회제도를 부정한것은 아니다.

2

명조중엽이후 환관들이 정권을 잡고 밀정들이 행악하여 정치가 더욱 부패해졌다. 명무종 주후조(明武宗朱厚照)는 사람을 쓸줄 모르고 정사에 어두웠는바 류근(劉瑾) 등 간신배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였다. 그들은 살인과 방화를 마음대로 하면서 백성들을 압박하였으며 재산이 황실보다도 더 많으면서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에 급급하였다. 류근은 죄물을 먹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관직에서 내쫓고 죄물을 먹인자에 대해서는 벼슬을 높여주면서 강압적으로 죄물을 요구하였다. 명세종 주후충(明世宗朱厚熜)때에 와서는 탐관들이 득실거리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게 되었다. 엄송(嚴嵩), 엄세번(嚴世蕃) 부자는 왕법을 무시하고 재주가 어떠하든지 죄물을 먹이는 량에 따라 관직을 봉해주었다. 하여 “장수가 승진하려면 병졸들을 못살게

굴어야 하고 관리가 득세하려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군사들은 흩어지고 백성들은 류리갈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유기》에서 다룬것은 비록 귀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 명조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서유기》는 암흑하고 부패한 봉건사회와 어리석고 흉폭한 통치자들에게 대해 심각하게 폭로하고 비판하였다. 작품속에서 묘사된 천국이나 인간세계는 어느 하나 깨끗한 곳이 없다. 천궁이나 지부는 보기에 아주 신성하고 위엄있어 보이지만 실은 겉치레일뿐 그속은 부패하고 추악하기 그지없다.

당태종의 혼이 지부에 갔을 때 판관 최각은 선황의 신하였고 또 그는 당대의 재상이자 그의 절친한 친구인 위징의 편지를 받은 원인으로 생사부의 기록을 고쳐 당태종의 수명을 20년이나 더 늘구어 혼을 이승에 보내주었다.

당승 일행이 간난신고를 거쳐 서방 극락세계에 도착하였지만 아난과 가엽은 경을 공짜로 주려 하지 않았다. 당승은 진경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 오는 길에서 동냥할 때 쓰던 자금바리대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계국의 사리요괴는 국왕을 죽여버리고 국왕으로 변하여 왕위를 독점하였으나 그가 신이나 염왕들과 잘 아는 사이이기때문에 오계국 국왕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이러한 묘사들은 바로 관리들끼리 한통속이 되어 왕법을 무시하고 탐오회피하는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유기》는 어리석고 무능하며 조폭하고 음란한 통치계급을 비판하였다.

소설속에서 나오는 인간세상의 제왕들은 도교나 숭상하고 녀색에나 빠진 어리석은 군왕들이고 천국의 옥황상제마저도 옹고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우매하며 독재적인 인물이다. 그는 손오공을 제압하기 위하여 태백금성과 태상로군 등 일당들의 지지하에 음모를 꾸미고 수단을 부리면서 안하는것이 없다. 이러한 통치자들의 형상에서 우리는 인간사회 봉건제왕과 관료들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우며 세도를 부리는 반동적인 면모를 보아낼수 있다.

《서유기》에서 당승이 취경길에서 만나는 많은 요괴와 악마들은 험난한 자연환경의 신화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많이는 인민을 해

치는 사회악세력들을 상징한것들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제 44회에 나오는 호력대선 등 세 대선은 요술로서 차지국의 국왕의 신임을 사고 중들을 해치는데 중들은 더러는 죽고 죽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되었다. 죽지 못한 나머지 중들은 포도군사들이 사처에 깔려서 도망을 칠래야 칠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수도 없는 처참한 처지에 있었다. 뿐만아니라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적거나 빠진 사람들도 중으로 몰려 도망치기 어려웠다.

이것은 명조시기 시정배가 살판을 쳐 길을 다니기도 겁이 나고 한집이 죄를 지으면 옆집까지 벌을 받아야 하는 런좌를 당해야 했던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오승은은 명조 명세종시기에 생활했던 인물이다. 력사기재에 의하면 명세종은 도교를 매우 숭상하였는바 선후하여 소원절(邵元节), 도중문(陶仲文) 두 도사를 “진인”으로 봉하고 레부상서 관직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 무슨 “령소상청통퇴원양묘일비현진군(灵霄上清统雷元阳妙一飞玄真君)”이라는 도호를 붙이였다. 제40회에서 나오는 요괴 홍해아의 잔혹한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찍하게 할 정도이다. 그는 산신들을 박해하여 어느 산신 하나 배불리 먹고 변변히 입지 못하게 할뿐만아니라 산신과 토지신들을 잡아다가는 아궁지거나 문지기로 부려먹고 밤이면 야경까지 세웠으며 지어는 그놈의 줄개들까지도 산신과 토지신들에게 돈을 풍기였다. 만약 그런것마저 보내지 못하게 되면 그놈들은 물려와 절간을 마스고 옷을 벗겨가기때문에 토지신과 산신들은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것은 바로 명조시기 백성들이 압박과 착취를 받고도 하소연할 곳마저 없으며 먹을것 입을것이 없어 허덕이는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서유기》에서는 인민을 해치고있던 요괴들이 모두 신선이나 보살들과 관계가 있음을 폭로하였다. 비구국의 국장(国丈)은 원래 수성이 타고있던 흰사슴이고 평정산의 금각대왕과 은각대왕은 대상로군의 금로와 은로를 살피던 동자이며 통천하의 요괴는 관음보살이 런꽃못에서 기르던 금붕어이며 소뢰음사의 황미대왕은 미륵보살의 황미동자이다. 또 사타산의 첫째 마왕과 둘째 마왕은 문수, 보현 두 보살이 타던 청사자와 흰코끼리이고 셋째 마왕 대봉은 여래와 련관이 있으며 함공산 무저동의 요정은 리천왕의 의녀이고 완자산 흑송림의 황포괴

는 하늘의 이십팔수가운데의 하나인 규목랑이 하계에 내려온것으로서 손오공의 말을 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요괴”이다. 이런 요괴들은 신선과 보살의 부하가 아니면 그들의 친척으로서 매번 손오공이 그들을 없애려고 할 때면 그들의 주인이 나타나 귀순시킨다는 명의하에 그들을 보호해주곤 한다. 예를 들면 요마 새태세는 원래 관음보살의 금빛털의 늑대였는데 주자국의 황후를 빼앗고 궁녀를 죽였으며 국왕도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하였는데도 보살은 도리어 그가 주자국 국왕을 재난에서 구해주었다고 말하였다. 또 이 관음보살은 온갖 죄악을 저지른 홍해아를 문하에 들이여 선재동자로 봉하였다. 이 책에서 쓴 신과 요괴의 관계는 사실상에서 봉건사회에서 통치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인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현실사회의 반영이었다.

소설 《서유기》는 종교에 대하여 특히는 도교에 대하여 신랄하게 조롱하고 풍자하였다. 소설에서는 도사를 부정인물로 부각함으로써 요술의 허망함과 도교의 가소로움을 폭로하고 질타하였다. 소설에는 또 저팔계가 복성, 록성, 수성의 면전에서 그들을 “종놈”이라고 회롱하는 장면이 있다. 소설은 불교에 대하여 비교적 높이 받들기는 하였지만 역시 여러곳에서 불교를 풍자하였다. 예를 들면 손오공은 여래의 앞에서 여래를 “요괴의 조카”라고 말했는데 이는 신에 대한 대담한 풍자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불교에 대한 불경스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불교의 일부 교의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취경길에서 손오공과 당승은 늘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를 대하는 문제때문에 모순이 생기곤 한다. 손오공은 요괴를 때려죽일것을 주장하고 당승은 늘 “착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면서 요괴를 죽이지 말것을 주장하나 나중에는 손오공이 옳고 당승이 틀렸음이 증명된다. 이것은 불교 교의중에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교의는 믿을것이 못되며 위해가 크다는것을 말해주며 이런 교의를 믿는것은 더욱 아둔한것임을 말해준다.

만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서유기》의 종교와 신권에 대한 비판은 당시 사회의 암흑성과 긴밀히 련관되어있다는것이다. 책에서는 도교에 대해 제일 날카롭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가정년간에 도교가 통치계급사이에 성행하면서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었던 원인으로 작가가 이에 대해 특별히 반감을 가졌기때문이다.

오승은이 봉건사회와 봉건통치계급 및 종교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을 한 목적은 통치계급에게 “교훈”을 제시해주어 그들이 틀린것을 고치고 바른길에 들어설것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으나 우리는 작품을 통하여 명조사회의 암흑성과 봉건통치계급의 부패상을 료해할수 있다. 《서유기》는 도대체 무엇이 봉건통치이고 무엇이 봉건사회인지를 인식하는데 우리에게 생동하고 형상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있다.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라는 반항적이고 신화적인 영웅형상을 부각하고 찬양하였다. 소설에서 손오공은 대담하고 투쟁정신이 강하며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무법천지”라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다. 그는 신성불가침이라고 말하는 천궁도 근본 안중에 없었다. 금고봉을 들고 마음대로 령소보전을 들부시고 도술궁을 침범하여 천궁을 란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는 또 “생사정수(生死定数)”, “육도륜회(六道轮回)” 설법도 무시한채 유명부에 쳐들어가 생사부에 있는 원숭이족속들의 이름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천자는 존귀한 존재이고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범하면 안된다”는 따위의 교리를 무시하고 천궁의 존귀한 신들을 완전히 념두에 두지 않았으며 천상지존인 옥황상제앞에서도 “이 손오공”이라고 칭하며 반말을 썼다. 손오공은 대담하게 들부시고 욕할뿐만아니라 투쟁중에서 무서워하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다. 그는 천병에게 겹겹이 포위되었을 때에도 지혜와 용기로써 끝까지 싸웠으며 붙잡혀 로군의 단로안에서 49일 단련되어 눈알이 빨강게 되었어도 비판하지 않았다. 단로안에서 뛰쳐나오자 바람으로 귀안에서 금고봉을 꺼내 사발아구리만큼 크게 만들어 손에 들고 다시 천궁을 분탕하러 쳐들어갔다. 서천으로 가는 길에서도 가지각색 요괴들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으며 하늘에 오르든지 땅에 들어가든지 요괴의 래력을 알아낸 뒤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아무리 큰 난관도 손오공을 막지 못하였다. 한번은 그가 사타산에서 요괴의 “음양이기병”속에 빨려들어가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하였으나 이발을 사려물고 아픔을 참으며 갖은 방법을 다해 도망을 쳐 다시 싸움을 벌렸다. 소설에서 천궁을 소란시키고 지부를 쳐들어가는 손오공의 대담한 반역적인 행동과 용감하고 지혜로운 성격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용감히 투쟁하고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손오공의 정신은 당승과 저팔계와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소설중에서 당승과

저팔계는 그 자신이 가지고있는 전형적인 의의외에 작품중에서 손오공이라는 인물을 더욱 뚜렷이 부각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가는 당송의 연약함을 비판하면서 손오공의 대담히 투쟁하려는 정신을 더욱 뚜렷이 하였고 또 신심과 의지력이 결집하고 쩌하면 짐을 나누어서 헤어지자고 하며 싸움에서 도망칠 구멍만 찾고있는 저팔계의 결점을 비판하면서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을 견지하려는 손오공의 형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하였다.

봉건사회에서 통치계급은 늘 자기에게 대항하는자들을 홍수, 맹수와 비기면서 대역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서유기》는 천궁과 지부의 통치자에 과감히 대응하는 예술형상을 부각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력사조건에서 볼 때 일정한 의의를 갖고있다. 우리가 손오공의 투쟁정신을 긍정하는것은 그가 대적하는것이 어리석고 횡포한 봉건통치자와 인민을 해치는 요괴들이며 인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있기때문이지 무턱대고 긍정하는것은 아니다. 작가는 제44회에서 인간사회의 불만을 평정하고 곤난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손오공의 행동을 중들의 입을 빌어 찬미하였다. 취경길에서 손오공은 인민을 해치는 요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없애버림으로써 인민들을 위해 해를 제거하였다. 레를 들면 비구국에서 그는 백록정을 항복시킴으로써 1,111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고 은무산에서는 표범요정을 때려죽이고 나무군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또 천방백계로 파초선을 구해 화염산의 불을 끄으로써 사제일행이 서천길을 계속 갈수 있게 했을뿐만아니라 당지의 백성들을 위하여 곤난을 덜어주었다.

손오공의 요괴를 처단하는 정의적인 행동과 승천입지하며 호풍환우하는 신통한 재주는 당시 인민군중들의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고대인민들의 리상을 안반침해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몇백년을 내려오면서 손오공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사랑스런 신화영웅형상으로 자리잡을수 있었던것이다.

모택동동지는 그의 유명한 시편 “칠률 · 광말약동지에게 화답함(七律 · 和郭沫若同志)”에서 백골정을 세번 친 손오공의 이야기를 쓰면서 손오공의 과감히 투쟁하는 정신과 요괴를 소탕하는 행동에 대해 찬양